

한국 직업의 성별 분리, 1970-90: 대수선형 및 승법모형의 적용

한 준*

본 연구에서는 성적 불평등의 두드러지고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서 직업의 성별 분리의 추세를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업의 성별 분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상이성지수 혹은 표준화지수 등이 직업구성 혹은 취업자 성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의 성별 분리의 추세를 살펴보는데 적합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업구성과 성비를 모두 통제한 새로운 성별 분리의 지표로서 대수연관지수를 자료에 적용하여 직업의 성별 분리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대수연관지수는 상이성지수 혹은 표준화지수와 달리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성별 분리의 감소경향이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일수치 지수만으로 변화의 복합성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단일수치 만으로는 변화의 양과 방향의 복합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 분리의 추세를 부문별로 혹은 직업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직업의 성별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로서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의 증가, 성평등주의의 확대, 산업구조의 심화와 정보화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평등주의의 효과는 민간부문보다 공론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직의 남성화, 정보화 부문에 대한 여성의 진출 등이 두드러졌다. 한편 고등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서, 전통적으로 남성우위의 직종으로 여겨진 법률, 회계 등의 분야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자유직의 성격을 띤 전문직에서 성별 분리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사회학박사).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사회학, 사회계층론, 경제사회학 등이다. 논문으로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Banking Industry: 1873-1945*(1998)이 있다(E-mail: suinhan@chollian.net).

1. 머리말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남성은 남성 위주의 직업에 여성은 여성 위주의 직업에 몰리는 현상을 직업의 성별 분리라고 한다. 이러한 직업의 성별 분리는 성에 따른 불평등현상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현상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남성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분리가 사회적 평가 및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을 결과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Boserup, 1970, Goldin, 1990, Brinton, 1993). 특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불평등에 있어서, 직업의 성별 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England, Farkas, Kilbourne, and Dou, 1988, 한국의 경우는 남춘호, 1990 및 장지연, 1990), 직업 분리가 동일 직업 내의 임금차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Peterson and Morgan, 1995).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서 직업의 성별 분리의 정도를 낮추고, 직업의 성별 통합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에 80개 중분류 직업 가운데 여성이 10% 미만인 직업이 23개나 되는 반면, 여성이 70% 이상인 직업 4개에 전체 취업여성의 약 28%가 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한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직업의 성별 분리가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여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 동안 20세 이상 취업인구에서 여성 비율은 1970년의 33.7%로부터, 1980년에는 34.5%로 증가하지만, 1990년에는 32.2%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비중의 증가와 감소 속에서 남녀간 직업구성 상의 불균형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이 논문의 첫 번째 관심이다. 과연 직업의 성별 분리는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혹은 심화되고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센서스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한다.

직업의 성별 분리의 추세에 대한 경험적 판단과 함께, 이 연구는 그러한 변화 혹은 정체에 대한 이론적 설명도 시도한다. 이제까지 직업의 성별 분리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가 잘 연결되지 못하였던 점¹⁾에 주목해 이 논문에

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업의 성별 분리가 일어나는 원인과 같은 거대이론적 관심보다, 성별 분리의 지속 혹은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중범위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관심 또한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동안 직업의 성별 분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던 상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가 지닌 문제점, 특히 비교분석 혹은 통시적 분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를 모색한다. 아울러 대수선형 및 승법모형을 적용하여 직업의 성별 분리에서의 변화를 단일수치로 지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찾는 것 역시 본 논문의 방법론적 관심의 일부이다.

2. 성별 분리의 추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간 직업의 성별 분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성별 분리가 왜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경제학적 설명으로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취향에 따른 차별 혹은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에 따른 통계적 차별 등에서 분리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차별이론과(Arrow, 1973) 여성의 직업경력의 단절로 인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남성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인적 자본의 가치 저하가 일어난다고 하는 인적자본이론(Becker, 1964, 1985; Mincer, 1974, 1979; Polacheck, 1976) 등이 있다. 사회학적 설명은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각자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적 취향을 발달시키도록 차별적으로 사회화된다고 하는 주장(England, 1984; Marini and Brinton, 1984) 그리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결과 여성의 가사노동의 전담(Hochschild, 1990) 혹은 여성의 배제를 통한 남성의 물질적 이해보장(Hartmann, 1976)으로 인해 분리가 일어난다는 가부장제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에 의한 검증이 쉽지 않다. 이제까지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직업의 성별 분리의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김미숙, 1990; 강세영, 1995)과 성별 분리의 결과, 특히 주요한 경제적 보상인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장지연, 1990)에 집중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

1) Jacobs(1989)는 이 점에서 예외적이다.

은 인적 자본이론 혹은 차별이론을 비판하는 이외에 이론과의 관련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직업의 성별 분리의 원인에 집중된 이론적 설명이 갖는 거대이론적 편향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성별 분리에 대한 거대이론적 설명보다는 중범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즉 성별 분리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는, 성별 분리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이 연구의 이론적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 이론적 설명을 위한 탐색적이고도 전초적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성별 분리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성별 분리를 가져온 원천에서 찾을 수 있겠다. 차별적 사회화에 의해 여성과 남성의 직업관이 형성된 것이 성별 분리와 관련이 있다면, 교육에 의한 의식의 변화는 성별 분리의 정도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대학교육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의 대학진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대학전공에서의 성별 분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대학마다 여성관련 과목들이 생겨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공식교육을 요구하는 전문기술직과 관리직에서 남성의 독점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향도 존재한다. 만약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과 기회구조의 제약이 지속된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꺼리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여성직종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의 성별 분리는 지속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는 사회적 기회구조나 인력의 수요에 매개되어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양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여성의 취업이 결혼과 출산, 육아에 의해 단절되고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연령에 따라 M-형을 보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업의 단절은 한국과 같이 연공형 승진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문관리직을 남성이 주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성의 취업의 단절은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이 결혼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직장

을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취업 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과 함께 기혼여성에 대한 압력이 특정 직종에서 여성의 배제시키는 기제로 활용되어온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rinton(1993)은 미국과 일본의 직업의 성별 분리가 갖는 특징을 비교하면서, 미국에서는 남성직과 여성직의 구분이 권위나 직업적 지위에 의해 반드시 나뉘는 것이 아닌데 비해 일본은 권위를 누리고 지위가 높은 직업은 남성직, 그렇지 못한 직업은 여성직으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여 직업의 성별 분리는 주로 권위와 지위의 구분을 따라 이루어지며 여성에 대한 차별 역시 권위와 지위를 누리는 직업에서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직업의 성별 분리의 원인일 경우, 변화의 가능성은 제도적 개입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성평등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Charles, 1992). 한국에서도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강제성을 띤 법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 과거의 차별적 인사를 교묘하게 계속한다는 사실은 이 법의 효과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손경년, 1993).²⁾ 기업들과 같은 사적 부문에서는 고용평등법의 영향이 미약하지만, 공적 부문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정부의 경우 법 시행의 주체라는 점과 아울러 공론의 압력이 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의 임용 및 배치, 인사에서 차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만약 고용평등법이 직업의 성별 분리를 감소시킨다면, 그 영향은 공적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경제의 거시적 변화에 의해서도 직업의 성별 분리는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는 산업구조의 심화와 3차 산업화, 정보화의 흐름이 경제 및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구조의 심화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중심으로 하여 단순조립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꾸었고 그 결과 노동력의 남성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3차 산업화는 국민경

2)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들은 고용평등법의 제정 이후 드러난 차별은 줄이면서도 위장된 형태로 차별을 지속한다고 한다. 일본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는 Lam(1992)을 참고할 수 있다.

제에서 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늘려 여성의 이들 산업으로의 집중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보화가 직업의 성별 분리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홍립, 1997). 즉 정보화에 따라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도입되어 여성의 취업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사무전산직의 지위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은 생산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소에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성별 분리의 측정과 모형화

직업의 성별분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주 이용되어 온 것은 던칸(Duncan and Duncan, 1955)의 상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이후 D)이다. 이 지수는 거주지역의 인종별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그로스(Gross, 1968)에 의해 직업의 성별 분리 현상에 적용된 이후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직업의 성별 분리 연구에 상이성지수는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상이성 지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D = 50 \times \sum_{i=1}^n \left| \frac{W_i}{W} - \frac{M_i}{M} \right|$$

이때 n 은 직업의 총수이고, $W(M)_i$ 는 i 번째 직업을 가진 여성(남성)의 수이며, $W(M)$ 은 직업을 가진 여자(남자)의 총수이다. 상이성지수는 직업의 완전한 성별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이동해야 할 남자들(혹은 여자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때 직업의 완전한 성별 통합이란 모든 직업에서의 성비가 직업을 가진 전체 남녀의 성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이성지수는 최고치가 100으로, 이는 모든 남자들(혹은 여자들)이 직업을 바꾸어야만 직업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완전 분리를 나타내며, 반대로 최저치는 0으로, 이는 직업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 통합이다.

이처럼 상이성지수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직업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요컨대 상이성지수의 변이가 성별 분리 수준의 변화 뿐 아니라 직업분포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상적 예를 생각해 보자. 남자 100명과 여자 50명을 세 직업 A, B, C에 서로 다른 비율로 나누어 성별 분리의 상이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직업	경우 1			경우 2			경우 3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A	30	10	3	50	20	2.5	15	5	3
B	40	20	2	20	10	2	55	25	2.2
C	30	20	1.5	30	20	1.5	30	20	1.5
계	100	50	2	100	50	2	100	50	2

전체 취업인구의 성비가 2대 1이므로 직종 전반의 성비가 이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별 분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에 경우 2가 가장 성별 분리가 낮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 가지 경우의 상이성지수를 계산해보면 모두가 13.13으로 똑같다. 그 이유는 경우 1과 3은 성별 분리의 정도가 낮은 직업 B의 직업구성상의 비중이 높은 반면(1 경우는 40%, 3 경우는 53.4%), 경우 2는 분리의 정도가 낮은 직업 B의 비중은 작고(20%)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정도가 높은 직업 A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46.7%). 결국 1과 3의 경우는 분리의 정도가 경우 2에 비해 과소평가된 반면, 2의 경우는 경우 1이나 경우 3에 비해 과대평가된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직업의 성별 분리의 통시적 비교에서 이러한 상이성지수의 약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 동안에 직업구조의 변화가 급격할 경우 상이성지수의 변화는 순수한 성별 분리의 변화만이 아닌 직업구조의 변화까지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상이성지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직업규모에 따른 표준화지수(size standardized index, 이후 SSI)이다.³⁾ 이것은 직업분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직업의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측정한다. 이때 표준화지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3) 김미숙(1990)은 <상이성지수>와 <직업규모에 따른 표준화지수>를 각각 <조측정치>와 <절대표준 측정치>로 부르고 있다.

$$SSI = 50 \times \sum_{i=1}^n \left| \frac{W_i/T_i}{\sum(W_i/T_i)} - \frac{M_i/T_i}{\sum(M_i/T_i)} \right|$$

위의 식에서 T_i 는 i번째 직업에 종사하는 남녀의 총수이며, 다른 문자들은 앞과 동일하게 정의한다. 표준화지수는 직업분포가 균등하다고 할 때, 즉 모든 직업의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완전통합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이동해야 할 남자들(혹은 여자들)의 백분율이다. 그런데 표준화지수는 직업구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꾸로 노동력인구의 성비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의 변화가 직업의 성별 구성에 뭇지 않게 중요한 주제이며 이를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효과들의 혼동은 분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직업의 성별 분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직업의 선택에서 남성들과 평등한 기회를 갖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취업인구의 성비를 통제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성지수와 표준화지수 양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찰스와 그루스키(Charles and Grusky, 1995)가 제안한 분리의 대수선형 연관지수(log-linear association index, 이후 A)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대수선형모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성과 직업의 영향을 동시에 통제한다는 점에서 상이성지수와 표준화지수의 문제점을 모두 극복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연관지수는 직업별 성비의 대수값의 평균을 구한뒤 각 직업별로 성비의 대수값과 평균과의 편차를 구하고 그 절대값을 전체 직업에 걸쳐 평균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 \exp \left(\frac{1}{n} \times \sum_{i=1}^n \left[\log \left(\frac{W_i}{M_i} \right) - \left\{ \frac{1}{n} \times \sum_{i=1}^n \log \left(\frac{W_i}{M_i} \right) \right\} \right]^2 \right)^{\frac{1}{2}}$$

연관지수는 여성의 여러 직업들에 걸쳐 남성에 비해 불비례하게(disproportionately) 분포(과다분포 혹은 과소분포)되어 있는 평균적인 정도를 의미한다(Charles and Grusky, 1995). 또한 연관지수는 다음과 같은 대수연관(log association) 포화모형(saturated model)에서 직업별로 추정되는 척도치(scale value)의 평균값이기도 하다.

$$m_{ij} = \alpha \beta_i \gamma_j e^{(Z_j, \mu_i)}$$

이 식에서 i 는 직업을 j 는 성을 나타낸다. m_{ij} 는 i 번째 직업의 j 성에 해당하는 칸의 빈도기대치이며, α 는 주효과, β_i 는 i 번째 직업의 효과, γ_j 는 j 성의 효과, Z 는 성을 나타내는 이항지표변수, 그리고 μ_i 는 i 번째 직업의 척도치를 나타낸다.

앞의 가상적 예로 들었던 자료로부터 대수연관지수를 계산해 보면, 2의 경우가 3.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경우 3과 경우 1의 순으로 각각 4.61과 4.33이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업별 성비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

4.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에 대한 분석모형

직업의 성별 분리가 약화되는가 아니면 심화되는가는 시기별로 분리지수값의 증감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작업은 이처럼 관측되어진 직업의 성별 통합 혹은 분리의 심화가 모든 직업에 걸쳐 동일한 방향과 속도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변화의 속도 및 방향이 직업 혹은 부문별로 상당한 변이를 보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방법론적으로 다음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직업의 성별 분리의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어떤 단일수치(scalar) 지표가 가능한가? 이 논문에서 본인은 시기별로 총합한(pooled) 직업별 성별 빈도표에 대수선형 모형(log-linear model)과 대수승법모형(log-multiplicative model)을 적용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대수선형 및 승법모형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본적 모형에서 출발하여 성과 직업, 시기의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들을 체계적으로 더하여 가면서 모형마다 자료와의 적합도를 구하여 비교함으로써 직업의 성별 분리에서 보이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일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출발점은 시기별로 직업과 성의 효과만을 포함한 조건부 독립모형이다. 이 모형은 직업과 성의 관계가 없다고 즉 성별 분리가 없다고 가정하는 비현실적 모형이다. 이 모형이 갖는 의의는 이것이 자료에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자료와 격차(discrepancy)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요컨대 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자료의 변이를 성별 분리를 나타내는 상호작용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조건부 독립모형에 차례대로 성비과 직업구성, 시기별 효과의 상호작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현실에 근사한 모형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의 모형은 성비와 직업구성의 변화를 통제하는 대신, 시기별로 성별 분리의 정도와 패턴의 변화를 무시한 모형이다. 요컨대 직업의 성별 분리가 통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_{ijt} = \alpha_t \beta_{it} \gamma_{jt} e^{(Z_j \mu_i)}$$

i는 직업, j는 성, t는 시기를 표시하며, α_t 는 연도별 주효과, β_{it} 는 i번째 직업의 연도별 효과, γ_{jt} 는 j번째 성의 연도별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Z는 성을 나타내는 이항지표변수, 그리고 μ_i 는 i번째 직업의 성별 분리의 척도치(scale value)를 나타내는데 각 연도마다 직업별로 동일한 척도치를 공유하도록 제약함으로써, 직업의 성별 분리가 고정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분리의 정도는 변화를 허용하되 동일한 패턴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즉 직업의 성별 분리에 변화가 있다면 모든 직업들에서 비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모든 단일수치 지표의 비교에 기초한 변화추이의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차이라면 상이성 지수의 경우 시기별 직업구성의 차이를, 표준화지수의 경우 시기별 취업인구 성비의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log-multiplicative layer effect model) (Xie, 1992)을 이용하여 추정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_{ijt} = \alpha_t \beta_{it} \gamma_{jt} e^{(\Phi_t Z_j \mu_i)}$$

이 모형에서 Φ_t 는 연도별 승법적 전이효과(multiplicative shift effect)를 나타내며 나머지 문자들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 모형에서 직업의 성별 분리는 전이효과(Φ_t)를 통해서 전 직업에 걸쳐 획일적으로(uniformly)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 두 모형들은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 성별 분리가 시기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가 직업 대분류의 수준에서 얼마나

대변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대분류 직업범주들은 직업적 속성이 유사한 하위범주들을 묶은 것들이므로 동일한 대분류 직업범주에 속한 직업들은 직업의 성별 분리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보이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보면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의 변화를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하위 수준에서 얼마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직업분류의 상위 수준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하위 범주에서 재분리(resegregation)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Bielby and Baron, 1984)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가설은 근거있는 것이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고정적 성별 분리모형에 시기별로 대분류 수준의 직업 효과를 추가하고 있으며, 네 번째 모형은 성별 분리의 획일적(uniform) 변화가 각 대분류 직업군 내에서 가능하도록 가정을 완화하였다. 이들 모형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m_{ijt} &= \alpha_t \beta_{it} \gamma_{jt} e^{(Z_{ji} v_m + Z_j \mu_i)} \\m_{ijt} &= \alpha_t \beta_{it} \gamma_{jt} e^{(Z_{ji} v_m + \Phi_t Z_j \mu_i)}\end{aligned}$$

이때 v_m 은 m 번째 대분류 직업군의 대표효과를 나타내며, 나머지 문자들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된다.

5. 자료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추세를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전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의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⁴⁾ 인구센서스는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970년, 1980년, 1990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5년 단위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985년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표본조사의 보고서에서 성별 직업별

4) 인구센서스 이외에 직업의 성별 분리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임금실태조사(장지연, 199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강세영, 1995) 등 노동부 조사자료들이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김미숙(1990)의 연구가 있다.

빈도표가 다른 연도들과 비교가 불가능하게 간략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에 관찰을 끝마치고 1995년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분류체계가 바뀌어(1992년), 이전 자료들과 일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1960년도 자료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70년 센서스 이후 1990년까지 한국의『표준직업분류』는 196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국제표준직업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80개의 직업범주들을 포함한다. 직업의 성별 분리를 분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세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위 수준에서의 자료의 집성(aggregation)이 하위 수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리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직업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직업분리지수가 높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Jacobs, 1989). 본 연구에서 이용한 중분류 직업범주들은 가장 자세한 직업분류는 아니지만, 센서스보고서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자세한 분류라는 점 때문에 이용되었다. 세분류 수준에서 성별 직업별 빈도표는 1990년 보고서에서만 가용하기 때문에 이전 연도와의 비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구의 연령범위는 20-65세이다.

센서스 자료의 이용에서 유의할 점은 센서스에서 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관련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표본추출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1970년에는 10%, 1980년에는 15%, 그리고 1990년에는 10%의 표본추출비율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표본의 크기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보고서의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숫자들은 표본조사의 결과에 의한 전수 추정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보고서에 제시된 직업별 성별 빈도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본추출비율을 적용하여 원래의 조사된 결과로 환원하여 사용하였다.

6. 분리지수의 시기별 추이

〈표 1〉에서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별로 측정한 직업의 성별 분리의 각종 지수값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은 상이성지수와 표준화지수는 대단히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두 지표 모두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며,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감소의 폭이 미미하

〈표 1〉 직업의 성별 분리 지표값들의 추세, 1970-1990

	상이성지수	표준화지수	대수연관지수
1970	56.8	53.2	6.12
1980	52.6	48.5	7.20
1990	52.4	47.4	4.55

다. 즉 이 지수값들이 암시하는 바에 따르면 직업의 성별 통합은 주로 1970년대에 진행되다가 1980년대에는 정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수연관 지수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직업의 성별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의 성별 분리가 심화되다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36.9% 만큼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 간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상이성지수나 표준화지수 양자 모두 성비와 직업구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비나 직업구성의 변화 혹은 이들과 직업별 성비변화의 상호작용이 이들 지수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구성에서의 비중이 증가한 직업에서의 변화는 상이성지수에 실제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 비중이 축소된 직업에서의 변화는 실제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이성지수와 표준화지수가 현실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둘째로 대수연관지수가 계산과정에서 직업별 성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연관지수가 직업별 성비의 극단치를 부당하게 많이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직업에서 한 쪽 성의 수가 대단히 적을 경우 성비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대수연관지수상에 나타난 분리의 심화는 이러한 인위적 결과(artifact)일 가능성이 높다. 1980년의 센서스 표본조사 자료에서 두 직종 <항공기 및 선박고급 승무원>과 <경제학자>에 여성의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들 직업의 척도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치의 영향이 전반적 추세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두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만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연관지수의 값이 저하하고 1970년과 1980년 사이의 분리의 심화추세는 완만한 통합의 진전(5.964에서 5.786으로)으로 반전되었지만,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큰 폭의 변화

(5.786에서 4.452로)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이성지수와 표준화지수를 사용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로 계산된 상이성 지수 및 표준화지수의 값들을 비교해 보자. 대분류 직업범주들을 이용한 경우(Cho, 1987; Jin, 1987; Kang, 1993), 상이성지수는 본 연구의 절반이하로 낮게 나타난다(진기남의 경우 1970년에 20, 1980년에 18, 조형의 경우 1970년에 22.6, 1980년에 15.3, 강세영의 경우 1970년에 21.3, 1980년에 18.0). 이러한 사실은 성별 분리지수에 대한 직업범주의 구성적 효과(compositional effect)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분류 수준의 직업범주를 이용한 연구(김미숙, 1987)와 비교하면 상이성지수(1970년 53.52, 1980년 51.69)와 표준화지수(1970년 51.97, 1980년 49.63) 모두 비슷한 값들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과 1980년 사이의 분리지수의 저하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 세분류 직업범주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들은 상이성지수값들이 1986년의 경우 59.6(장지연 1990), 1992년의 경우 60.5(강세영, 1995)로 본 연구의 계산치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하지만 1980년대에 걸쳐 상이성지수에 변동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다.

7. 대수선형 및 승법모형의 추정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수치 지수를 이용한 시기별 비교 연구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분리지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직업의 성별 분리가 동일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직업별로 변화가 불균등하게 진행되거나 더 나아가 변화의 경향들이 서로 상쇄하게 된다면, 실제의 변화는 지수에 과소반영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과연 성별 분리의 변화가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면서 직업별로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직업마다 불균등하게 진행되는가를 대수선형모형 및 대수승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들의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조건적 독립모형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떨어진다(가-1). 직업의 성별 분리를 전혀 무시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표 2〉 1970-9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대한 직업의
성별분리의 대수선형 및 대수승법 연관모형 추정

모형들	L^2 1)	df	L_h^2/L_{tl}^2 2)	L_h^2/L_{t2}^2 3)
가. 기본 모형				—
1. 조건부 독립	1,590,685	237	100.0	
나. 고정 모형				
1. 고정적 분리	32,493	158	2.0	100.0
2. 분리 패턴의 공유	32,395	155	2.0	99.7
다. 부분 고정				
3. 대분류 직업 선형 변화	22,461	143	1.4	69.1
4. 대분류 직업 선형 및 승법적 변화	19,819	126	1.2	61.0

1) 최대 가능도 추정(maximum-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얻어진 가능도의 대수값.

2) 기본모형(가-1)에 비교한 가능도의 비.

3) 고정적 분리모형(나-1)을 기준으로 한 가능도의 비.

앞에서 지적한대로 이 모형은 비교의 기준으로서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직업구성의 변화와 취업자 성비의 변화를 통제하면서 직업과 성비의 상호작용 만을 포함한 모형(나-1), 즉 동일한 패턴과 정도의 성별 분리가 지속되리라고 가정한 모형은 조건부 독립모형에서 설명치 못한 자료의 변이의 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 L_h^2/L_{tl}^2$). 이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성별 분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자료에 근사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아직 설명되어야 할 변이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L^2 = 32,493$).

그러면 과연 변화가 각 직업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수승법모형을 자료에 적용해 보았다(나-2). 결과는 설명력의 증가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시기별 승수효과만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바로 전단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0.3%만 증가했을 따름이다($100 - L_h^2/L_{t2}^2$).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은 1970년과 1990년 사이 성별 분리의 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변화가 없었다면 고정적 분리모형이 자료에 적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는 상당정도의 자료의 변이를 순전히 우연과 오차의 결과로 단정

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변화가 획일적 패턴을 따르지 않고 직업별로 상이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속도로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일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직업별로 상이한 성별 분리의 변화방향과 속도를 대분류 직업 범주의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우선 고정적 분리모형에 시기별로 대분류 직업범주 별로 성별 분리의 변화를 포괄하는 효과를 추가하여 자료에 적용하였다(다-3). 그 결과 고정적 분리 모형에 비해 30.9% 만큼 설명력이 증가하였다($100 - L_h^2/L_{t2}^2$). 이것은 성별 분리의 불균등한 변화가 대분류 수준의 직업범주들에 의해 어느 정도 포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분류 수준의 직업범주 내에서 동일한 패턴의 변화가 진행되다는 가정하에서 대분류 직업분류의 수준에서 대수승법모형을 적용하였다(다-4). 이 모형의 설명력은 고정적 분리 모형에 비하여 39%가 증가한 것이다($100 - L_h^2/L_{t2}^2$). 이처럼 대분류 직업범주를 통해 성별 분리의 변화방향과 속도의 불균등성이 어느 정도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하위 수준에서의 변화의 불균등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마지막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L^2 = 19,8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아있는 중분류 수준에서의 변화의 불균등성을 더 이상 모형화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연도별로 성별 분리의 대수연관지수를 계산하면서 적용했던 포화모형으로부터 얻은 성별 직업별 분리의 척도치를 비교함으로써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대분류 수준의 직업범주를 포함한 대수선형모형과 대수승법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얻어진 대분류 직업범주별 평균 척도치를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인 변화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3>은 앞의 <표 2>에 제시된 대분류 직업범주의 대표효과를 포함한 모형(다-3)으로부터 얻은 직업별 척도치를 제시한다.

우선 모형 3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면, 전 직종이 전반적으로 성별 통합의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척도치(scaling value)는 0이 그 직종의 통합을,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직종이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양의 수치는 여성이 과잉되어 있음을 음의 수치는 남성이 과잉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찾기는 어렵지만 1970년에 비해 1990년에는 분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직종의 경우 극단적인 남성직과 여성직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므로 대분류 수준에서의 변화는 그

〈표 3〉 대분류 직업범주의 대표효과를 포함한 연관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대분류 직업범주별 성별 분리의 척도치

	1970	1980	1990
〈표 2〉의 모형 3에서 추정된 대분류 직업범주별 성별 분리의 척도치			
전문·기술직	1.288	-0.049	0.464
행정·관리직	-4.908	-2.183	-1.717
사무직	-1.233	-1.168	-0.289
판매직	1.297	0.968	0.415
서비스직	2.210	2.405	1.129
농업직	0.712	0.127	0.010
생산직	0.634	-0.101	-0.012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행정·관리직의 경우 극단적 남성직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1990년까지도 가장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직종임을 알 수 있다. 행정·관리직에서 성별 분리의 감소는 여성 고등교육의 확대와 고용평등 이념의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무직 역시 남성직으로 남아 있지만 1990년에는 거의 통합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직은 여성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직종 역시 1990년에는 통합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직은 여성직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직종인데 역시 통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1990년까지도 가장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직종으로 남아 있다. 농업직은 조사의 신뢰성이 가장 의문시되는 직종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우위에서 완만한 통합으로의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직의 경우는 여성우위의 직종으로부터 남성우위의 직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에 의해 남성생산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대해온 것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8. 중분류 직업범주별 성별 분리의 변화

〈표 4〉는 각 연도별로 직업과 성의 연관모형에서 얻어진 직업별 성비의 척도치를 제시하고 있다. 앞의 대분류 직업군별 척도치와 마찬가지로 중분류 직업범주별

〈표 4〉 중분류 직업별 성별 분리의 척도치, 1970-1990

직업	1970	1980	1990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0.475	-1.475	-1.219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술공	-2.196	-2.141	-1.876
항공기 및 선박고급공무원	-3.688	-7.385	-3.052
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1.444	0.205	0.308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	1.597	1.786	1.843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석사 및 관련기술공	0.856	-0.154	-0.291
경제학자	0.529	-3.919	-0.289
회계사	-0.066	-0.748	-1.604
법무종사자	-1.472	-1.887	-1.567
교원	0.853	0.997	1.331
종교관계 종사자	0.898	0.568	0.346
저작자, 언론인 및 관련작가	-0.955	-0.115	0.440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	-1.108	0.671	0.356
작곡가 및 연예인	0.940	1.486	1.806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1.869	-0.873	0.2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1.717	0.933	1.316
입법공무원과 정부관리직 공무원	-6.670	-3.609	-3.400
관리자	-1.187	-2.436	-1.815
사무원 감독자	-2.996	-2.594	-1.972
정부 행정 공무원	-2.276	-0.453	-0.332
속기사, 타자원 및 카드 및 테이프 천공원	4.325	4.608	3.565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종사자	0.825	2.078	2.248
계산기 조작원	-0.028	0.939	1.132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자	-1.854	-1.801	-0.926
교통안내원	0.831	3.056	-0.182
우편물 취급사무원	-0.745	-0.459	-0.345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2.466	2.307	1.8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0.150	0.292	0.131
도소매 관리자	-0.466	-0.458	-1.268
도소매 자영자	0.978	0.744	0.311
판매감독자 및 구매원	0.458	-1.292	-1.444
보험, 부동산, 증권과 기업서비스 판매원 및 경매원	-0.248	0.574	1.156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	2.086	2.002	1.7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판매종사자	-0.038	-0.334	-0.518
요식숙박업 관리자	0.448	0.979	-0.554
요식숙박업 자영자	2.280	1.879	1.317
가사 및 관련서비스 감독자	2.627	0.745	-0.015
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종사자	3.091	2.831	2.63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 종사자	5.420	4.935	3.741

〈표 4〉 중분류 직업별 성별 분리의 척도치, 1970-1990

직업	1970	1980	1990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0.275	1.022	1.288
세탁공	1.372	0.922	0.799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종사자	1.471	1.739	2.287
보안업무 종사자	-2.472	-2.562	-2.6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직 종사자	1.261	1.180	0.824
농장관리자 및 감독자	-1.051	-1.299	-1.673
농장 경영자	0.258	0.232	-0.187
농업 및 축산종사자	2.986	2.887	2.810
임업종사자	0.619	0.052	-0.560
어부, 수렵인 및 관련종사자	0.872	0.640	0.236
생산감독	-1.128	-1.527	-1.695
광원, 채석원, 굴정원 및 관련종사자	-0.883	-1.247	-1.589
금속가공 처리공	-1.352	-0.825	-1.085
목재가공 종사자 및 제지공	0.564	0.414	0.085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종사자	0.414	0.554	0.391
방직공, 제지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종사자	3.086	2.295	1.663
가죽처리공	-0.375	1.095	0.766
음식료품 가공처리공	0.796	1.407	1.314
담배제조공	1.557	1.392	0.572
의복제조공, 재봉공,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	2.402	2.078	1.907
제화공 및 가죽제품 제조공	-1.095	0.729	1.552
가구제조공 및 관련목공	-0.367	-0.623	-0.065
돌 재단공 및 돌 조각공	-1.687	-1.194	-1.254
대장공, 공구제작공 및 기계공구 조작공	-1.054	-0.735	-0.685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구제작공(전기 제외)	-1.264	-0.927	-0.978
전기설비공 및 관련전기 전자공	-0.429	0.767	0.814
방송 및 음향장비 조작공과 영사공	-0.472	-0.186	-0.611
연관공, 용접공, 판금공, 구조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1.972	-5.050	-1.770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0.670	0.296	-0.099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종사자	-0.097	0.650	0.63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공	1.137	1.076	0.417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1.701	1.143	0.630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0.405	-0.091	-0.235
도장공	-1.813	-0.670	-0.6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종사자	1.372	1.260	1.142
벽돌공, 목공 및 기타 건설종사자	-1.481	-1.504	-1.876
고정기관 및 관련장비 운전원	-1.617	-4.152	-2.967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공	-1.745	-1.018	-0.946
수송장비 운전사	-1.709	-2.967	-2.408

척도치도 0을 성적 통합의 기준으로 양의 방향은 여성우위, 음의 방향은 남성우위를 나타낸다.

우선 직업별로 성별 분리의 추세를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직업의 성별 분리가 직업적 위신(홍두승, 1983)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았다. 1980년의 경우 직업적 위신과 성별 분리 척도치 간의 상관계수는 -0.37로 나타났다($p < 0.1$). 직업적 위신이 높을수록 남성직업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 직업의 성별 분리가 직업적 위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일어난다는 Brinton(1993)의 주장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제 직업별로 성별 분리의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척도치의 연도별 비교를 통해 직업들을 분리와 통합으로의 경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 <표 5>이다.

변화의 방향에 따라 그리고 직업의 성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보면, 우선 주목되는 사실이 남성직에서 여성직으로 그리고 여성직에서 남성직으로 성별 특성이 바뀐 직업이 상당수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직업의 성적 특성의 변화는 성별 분리의 지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래 남성직이었던 직업이 대체적으로 여성직으로 바뀐다면, 즉 성비에서 남녀의 위치만 바뀐다면, 이 직업의 성비가 전체 지수에 기여하는 바는 동일할 것이고 따라서 지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분리의 심화 혹은 재분리의 경향과 통합의 경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리지수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반된 경향들이 상쇄되고 남은 순잔여(net balance)일 따름이다.

이제 분리와 통합의 경향을 보이는 직업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전문·기술직 중에서 회계, 법무, 자연과학 등의 직업 및 행정·관리직에서 관리직의 경우 남성의 주도권이 유지될 뿐 아니라 강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반면 전문·기술직 가운데 건축 및 공학, 생명과학, 저술, 예체능 등의 분야와 행정·관리직에서 입법 및 정부관리직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무직 중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직종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리와 출납, 속기와 타자 등 전통적으로 여성직이었던 직종들은 변함이 없거나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관리직 가운데 입법 및 정부관리직에서, 사무직 중에서 공무원의 성별 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주장된 바, 공적 부문이 공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적 부문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고용평등법 실시 이후인 1989년부터

〈표 5〉 직업의 성별 분리의 추세 요약

원상태	변화의 내용	직 종
남성 우위직	분리심화	회계사, 도소매 관리자, 기타 판매 종사자, 농장관리자, 생산감독, 광부 및 채석원, 벽돌공 및 건설종사자, 수송장비운전사, 보안업무 종사자
	정체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항공기 및 선박승무원, 법무종사자, 관리자, 금속가공처리공, 가구제조공, 돌재단공,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제작공, 방송음향장비 조작공, 연관공
	통합	건축기술자 및 공학기술자, 입법 및 정부관리직, 사무원감독자, 정부행정공무원, 운수통신감독자, 우편물취급사무원, 기타 서비스 종사자, 대장공 및 기계공구제작공, 도장공
	여성우위직으로 변화	저작자 언론인 및 작가, 조각가 화가 사진사, 체육인, 계산기조작원, 기타 사무종사자, 보험 부동산 증권판매원, 가죽처리공, 제화공 및 가죽제품제조공, 전기설비공, 전기전자공, 장신구 및 귀금속세공공, 유리성형도기공
여성 우위직	분리심화	의료직 종사자(간호사), 교원, 작곡가 및 연예인,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종사자, 건물관리원 및 청소원,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종사자, 기타 생산 및 관련종사자
	정체	기타 전문기술직 종사자, 속기사 타자원 및 천공원, 어업 수렵종사자, 농축산업종사자, 화학물가공공, 음식물가공공
	통합	종교관계종사자, 전화전신기 조작원, 도소매자영자, 판매원 및 점원, 요식숙박업 자영자, 조리사 웨이터 및 바텐더, 기타 가정부 및 관련 가사종사자, 담배제조공, 목재가공 및 제지공, 방적공 직조공 편직공 및 염색공, 고무 프라스틱 제품제조공,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남성우위직으로 변화	통계학자 수학자 및 체계분석가, 교통안내원, 판매감독자 및 구매원, 기술판매원 외판원, 요식숙박업 관리자, 가사 및 관련서비스 감독자, 농장경영자, 임업종사자

공무원 모집에서 남녀를 구별해서 모집하던 관행을 바꾸어 통합 모집하는 등 남녀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노력해왔다고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또한 컴퓨터 관

련 직종으로의 여성진출의 확대는 정보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와 서비스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남녀의 분리가 점점 더 권위의 위계를 따라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판매 및 서비스 관리직에서 남성화가 진행되는 반면 단순 판매 및 서비스직에서는 여성화가 지속 혹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후기산업화와 서비스산업화로의 경향 그리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이 주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생산직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직업들이라고 여겨져왔던 광산, 건축, 수송장비와 기계금속 등에서 남성화가 지속 혹은 강화되는 반면, 여성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경공업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대분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직이 여성직으로부터 남성직으로 변화하였던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9. 요약 및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에서의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 결과 성별 분리는 완만하게나마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는 직업별로 서로 달라서 획일적인 성분리지수의 비교보다는 부문별 직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의 성별 분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의 확대와 성평등주의의 확산, 그리고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특히 정보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논한다면, 우선 본 연구에서 보다 세분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자료 집적(aggregation)에 따른 성별 분리의 은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문기술직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서 의료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분류되고 있다. 직업의 성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는 듯이 하면서도 많은 조직들이 실제 직무(job)에서는 새로운 성별 분리를 도입한다고 하는 Bielby와 Baron(1984)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 단위 뿐 아니라 일터(workplace)에서의 성별 분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직무와 권한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터 단위에서의 직무의 분리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강세영, 199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직업의 성별 분리가 권위의 위계와 직업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것이라면 과연 변화의 추세가 그러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는지도 별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여성의 경력이동의 정도와 그 영향, 경제활동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 코호트에서의 취업시의 성별 분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세영(1995), “사업체를 중심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현상”, 《한국사회학》 제29집.
- 김미숙(1990), “성분절 지수에 나타난 한국 취업여성의 지위: 1960-1980년”, 송호근(편), 《노동과 불평등》, 나남.
- 남춘호(1990), “조직부문 피고용자의 임금결정모형 연구”, 송호근(편), 《노동과 불평등》, 나남.
- 손경년(1993), “취업 전 그리고 취업 후의 ‘차별과의 전쟁’”, 한국여성연구회(편), 《여성과 사회》 제4호, 창작과 비평사.
- 유홍립(1997), 《정보화의 진전이 여성의 역할증대와 지위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지연(1990), “한국 사회 직업의 성별 분절화와 경제적 불평등”,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0호.
-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한국여성개발원.
- 홍두승(1983), “한국사회 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Arrow, Kenneth J. (1973),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in Orley Ashenfelter and Albert Rees (eds.)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er, Gary (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 Bielby, William T., and James N. Baron (1984), “A woman's place is with other women: sex segregation within organizations”, in Barbara F. Reskin (ed.) *Sex Segregation in the Workplace: Trends, Explanations, Remed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oserup, Ester (1970), *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 Press.
- Brinton, Mary C. (1993), *Women and the Economic Mirac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rles, Maria (1992), “Cross-national variation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 Charles, Maria and David B. Grusky (1995), “Models for describing the underlying structure of sex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 Cho, Hyoung (1987),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ir status in the economy: Republic of Korean and Hong Kong”, in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 pacific (e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U.N.
- Duncan, Otis D., and Beverly Duncan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i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 England, Paula (1984), "Socioeconomic explanation of job segregation", in Helen Remick (ed.) *Comparable Worth and Wage Discrimination: Technical Possibilities and Political realiti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England, Paula, George Farkas, Barbara S. Kilbourne, and Thomas Dou (1988), "Explaining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wages: findings from a model with fixed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 Goldin, Claudia (1990),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 Edward (1968), "Plus ça change...? The sexual structure of occupations over time", *Social Problems* 16.
- Hartmann, Heidi (1976),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1(3).
- Hochschild, Arlie (1990), *The Second Shift*, New York: Avon Books.
- Jacobs, Jerry A. (1989), *Revolving Doo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in, Ki-nam, and Gillian Stevens (1987),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n Korea: 1960-1980", *SSR* 71(2).
- Kang, Seyoung (1993), *The Earnings In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South Korea, 1977-1990*,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Austin.
- Lam, Alice (1992), *Women and Japanese Management*, New York: Routledge.
- Marini, Margaret Mooney, and Mary C. Brinton (1984), "Sex Typing in Occupational Socialization", in Barbara F. Reskin (ed.) *Sex Segregation on the Workplace: Trends, Explanations, Remed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 Mincer, Jacob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1979), "Human capital and earnings", in Douglas M. Windham (ed.) *Economic Dimension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Education.
- Peterson, Trond and Laurie A. Morgan (1995), "Separate and unequal: occupation- establishment sex segregation and the gender wage gap",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2).
- Polacheck, Solomon W. (1976), "Occupational segregation: an alternative hypothesis",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5(1).
- Xie, Yu (1992), "The log-multiplicative layer effect model for comparing mobility t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abstract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n Korea: 1970-90

Han Jun*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trend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n Korea from 1970 to 1990.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is a prominent and important aspect of gender inequality. Index of dissimilarity of size-standardized index, both adopted widely for measuring occupational segregation, are not free from marginal distribution, either gender or occupation, and therefore could not get rid of bias in observing the trend of segregation. I take advantage of a new margin-free association index to control for confounding effects of gender and occupation. In contrast to the other measures, association index emphasizes the downward trend in segregation between 1980 and 1990. However, the results from estimating log-linear and log-multiplicative models showed that the changes in segregation are far more complex than can be represented by changes in values of scalar index. This suggests a need to examine trend in occupational segregation by sectors and occupational groups. I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ch factors as increasing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EEO) legislation,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I found that this effect of EEO legislation is more salient in public sector rather than in private business sector. As a consequence of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male dominate manufacturing occupations and the female increasingly enter information-related occupations. The effect of high education appears among selected freelance professional occupations, and traditionally male-dominated professions such as lawyers or accountants

*Research Associate,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Organizational Sociology, Social Stratification, Economic Sociology

Doctoral Dissertation: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Banking Industry: 1873-1945*(1998)

E-mail: suinhan@chollian.net

remain unaffected.